서울경제

디지털 네이티브가 그리는 회화의 미래

June 16, 2025 | 김경미 기자

Click to read the full article

"퍼트까지 잡았다"…'新장타여왕' 이동은

DB그룹 한국여자오픈 우승
13언더로 메이저대회서 생애 첫 승
짧은 퍼트 놓쳤지만 침착한 플레이
14번홀서 보란듯 12m 버디로 승기
신인 김시현 2주 연속 준우승 차지

드라이버 샷하는 이동은. 15일 한국여자오픈 체재로 정규 투어 우승이 없는 프로 골퍼 부모의 한을 풀었다. 대회조직위

13번 홀(파4)에서 김시현이 버디를 잡자 이동은(21·SBI저축은행)은 1.5m가 안 되는 짧은 파 퍼트를 놓치고 말았다. 김시현에 2타 앞선 선두였는데 한 홀에서 순식간에 공동 선두를 허용한 것이다. 파를 지킨 노승희까지 챔피언 조 3명이 11언더파 선두. 남은 5개 홀 승부는 그야말로 안갯속일 뿐했다.

하지만 이동은은 보기 뒤 바로 다음 홀인 14번(파4)에서 보란 듯 '바운스백'했다. 12.5m 거리의 긴 버디 퍼트가 핀 살짝 오른쪽을 훼뚫고 쏙 들어갔다. 전 홀 성적은 김시현 버디, 노승희 파, 이동은 보기였는데 바로 다음 홀에서는 이동은 버디, 김시현 파, 노승희 보기로 확 뒤집어졌다. 김시현에 1타, 노승희에 2타를 앞선 이동은은 끝내 양예로운 '내셔널 타이틀'을 움켜쥐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 차 이동은이 대회명에 '한국'이 들어가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에서 데뷔 첫 우승에 성공했다. 이동은은 15일 충북 음성 레인보우힐스CC(파72)에서 끝난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에서 나흘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1타 차 정상에 섰다.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지난해 준우승 두 번으로 신인상 포인트 2위(1위는 유현조)를 했던 이동은은 올 들어 톱10 네 번의 안정적인 성적을 내오다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에서 트로피에 입맞춤 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다.

신인 김시현과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한 이동은은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였다. 14번 홀에서 승기를 잡았고 16번 홀(파5)에서 우승 경쟁 선수 중 유일하게 버디를 챙기면서 쐐기를 박았다. 318야드나 나간 티샷이 페어웨이에 잘 떨어졌고 두 번째 샷은 그린을 넘어갔지만 그린 주변 어프로치 샷을 핀 30㎝에 가깝히게 붙였다. 2타 차 선두로 맞은 18번 홀(파4)에서는 드라이버 대신 3번 우드로 티샷했다. 김시현이 버디를 잡아 1타 차로 압박을 받았지만 짧은 파 퍼트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

이동은은 부모가 모두 프로 골퍼다. 아버지 이건희씨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20년 가까이 투어 프로로 활동했고 어머니 이선주씨도 KLPGA 투어 준회원(세미 프로)이다. 투어 프로의 길이 얼마나 고된지 잘 아는 아버지 이씨는 딸이 골프를 업으로 삼지 않기를 바랐지만 자식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이동은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에 아빠를 졸라 해외 훈련을 따라갔고 거기서 남자 프로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자연스럽게 장타 요령을 터득했다. 그는 "어린 마음에 '저 오빠들 거리를 따라잡아야겠다' 했었다. 그러면서 계속 세게, 세게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가 늘었다"고 돌아봤다. 어릴 때 몸모델이 다름 아닌 '장타여왕' 박성현이었다.

이동은은 빠른 하체 턴과 코어의 힘으로 장타를 친다. 올 시즌 드라이버 샷 평균 거리가 260야드로 전체 1위다. 아이언 샷의 그린 적중률도 1위(78.8%)일 만큼 정상급 샷감을 뽐냈다. 퍼트가 상대적으로 아쉬웠는데 스트로크 때 자신만의 느낌을 최근 딱 잡으면서 우승을 위한 퍼즐을 맞췄다. 아버지 이건희씨는 "퍼트 못 하면 드라이버 멀리치는 거 다 소용없다"고 말이 아팠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다고 한다. 이동은은 같은 자리에서 퍼트 스트로크만 3시간씩 반복 연습하는 '퍼트 모범생'이었다.

신인 김시현은 지난주 셀트리온 대회 공동 2위에 이어 12언더파 단독 2위에 올라 2주 연속 준우승과 함께 신인상 포인트 1위를 굳게 지켰다. 2타 차 공동 3위로 출발해 21년 만의 이 대회 2연패에 도전했던 디펜딩 챔피언 노승희는 1타를 잃고 7언더파 4위에 만족했다. 상금·대상 등 주요 부문 1위 이예원은 3오버파 23위로 마쳤다.

양준호 기자

자존심 구긴 '골프 한일전' 日 소속 노리스가 정상에

KPGA 하나銀 인비테이셔널 최종
남아공 노리스 18언더 연장전 승리
단독 선두였던 최진호 1타차 3위로

대회 장소를 옮기며 야심차게 타이틀 탈환을 노렸던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가 자존심을 구겼다.

KPGA 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공동 주관으로 열린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3억 원)에서 JGTO 소속의 선 노리스(43·남아프리카공화국·사진)가 우승했다.

노리스는 15일 경기 안산의 더해븐CC(파72)에서 끝난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사카모토 유스케(일본)와 동률을 이룬 뒤 18번 홀(파5)에서 진행된 연장전에서 승리를 따냈다. 우승 상금은 2억 6000만 원. 이로써 JGTO는 지난해 강원 남촌천CC에서 펼쳐진 대회(오기소 다카시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 우승자를 배출했다.

노리스는 2002년 프로에 데뷔해 JGTO와 유럽 투어 등에서 활약한 베테랑이다. 2021년 일본 오픈 등을 우승하며 활약을 이어왔다. 이 대회 전까지 통산 7승을 거두고 있던 노리스는 2024년 12월 일본 시리즈 JT컵 우승 이후 7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4타 차 공동 5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노리스는 8번 홀(파3)까지 1타 밖에 줄이지 못하며 우승 경쟁에 합류하지 못했다. 하지만 9번 홀(파4)부터 무서운 기세로 추격을 시작했다. 17번 홀(파4)까지 5타를 줄이는 신들린 듯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선두 자리를 꿰찼다. 이날만 네 홀 연속을 포함해 버디 7개를 몰아치고 보기는 1개로 막았다.

하루 7타나 줄인 사카모토와의 연장에서도 노리스의 좋은 감은 그대로 이어졌다. 1차 연장은 버디-버디. 2차 연장에서 노리스는 환상적인 어프로치 샷으로 볼을 홀에 붙인 후 버디를 따내 파에 그친 사카모토를 눌렀다. 왼손을 내려 잡는 '역그립' 어프로치가 만든 우승이었다.

3라운드까지 1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렸던 최진호는 2022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이후 2년 9개월 만에 통산 9승 달성을 노렸지만 최종 라운드 후반 티샷 난조를 보이며 17언더파 단독 3위로 아쉽게 대회를 마쳤다.

안산=이종호 기자

김혜성, 이정후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절친 대결' 판정승

코리안 빅리거 첫 맞대결로 주목
1안타 1타점에 시즌 타율 0.382
다저스, 샌프란에 11대 5로 대승
이정후는 무안타·볼넷 1개 그쳐

김혜성 이정후

신인 김혜성(26·LA 다저스)이 '절친'이자 미국 무대 선배인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앞에서 적시타를 때려냈다. 내야를 벗어난 타구가 공교롭게도 중견수 이정후 앞에 떨어졌다.

김혜성은 15일(한국 시간) 미국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 시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 경기에 9번타자 2루수로 나서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382다.

2023년까지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김혜성과 이정후는 이날 처음 MLB 정규 시즌 맞대결을 벌였다. 전날 두 팀의 3연전 첫 경기에서는 김혜성이 결장했고 이정후는 볼넷 1개를 골라냈다.

김혜성은 이날 6대0으로 다저스가 앞선 3회 말 2사 3루에서 샌프란시스코 투번째 투수 스펜서 비벤스의 5구째 시속 148㎞ 커터를 파울라인 1타점 중전 적시타를 만들어냈다. 이정후가 달려나가 봤지만 타구는 그의 앞에서 뚝 떨어졌다. 1번 타자 이정후가 4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시즌 타율 0.266)에 그치면서 김혜성이 코리안 빅 리거 간 격돌에서 판정승을 거둔 셈이 됐다. 김혜성은 첫 타석인 2회 무사 2·3루에서 좌익수 직선타로 잡혔지만 다음 타석에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다저스는 1회 선두 타자 홈런에 이어 6회 솔로포를 추가한 오타니 쇼헤이의 맹활약(3타수 2안타 2타점 3득점 2볼넷)과 선발 투수 블레이턴 커쇼의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11대5로 이겼다. 시즌 24·25호 홈런을 때린 오타니는 내셔널리그 홈런 선두를 지켰다.

0대11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 2사 후 터진 케이시 슈미트의 만루 홈런 등으로 6점 차까지 쫓아갔으나 더는 점수를 내지 못했다. 2사 2·3루에 들어선 이정후는 2루 땅볼에 그쳤고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샌프란시스코와 서부지구 공동 선두였던 다저스는 지구 단독 선두를 탈환했다.

양준호 기자

선두권 지킨 최혜진, 美 첫 트로피 품나

마이어클래식 3R…우승경쟁 6파전

미국과 유럽 강자들이 몰린 6파전을 뚫고 세계 무대 데뷔 첫 우승에 골인할 수 있을까.

최혜진(26·롯데·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이틀 연속 선두를 달렸다. 그는 15일(한국 시간) 미국 미시간주 벨몬트의 블라이더필드CC(파72)에서 계속된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잡아 3타를 줄였다. 전날 공동 선두로 나섰던 최혜진은 사흘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2타 차 선두 그룹의 한자리를 지켰다.

선두에는 무려 6명이 몰렸다. 2승씩이었는 마들렌 삭스트룀(스웨덴)과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1승의 나나 마센(덴마크), 파리쥬이의 소피아 가르시아, 그리고 11승을 자랑하는 레넬 폰즈(미국)이다. 폼프슨은 지난해를 끝으로 '골든임 선수'는 그만두겠다고 했었고 올해는 간간이 대회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평균 드라이버 샷 309야드의 장타를 뽐냈다. 가르시아는 세계 랭킹 405위의 3년 차 선수다. 4년 차 최혜진처럼 아직 LPGA 투어에서 우승이 없다.

8번(파5)과 9번 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챙긴 최혜진은 14번 홀(파5)에서 2온 2퍼트로 1타를 더 줄였다. 마지막 홀 버디 기회를 놓친 것은 아쉽다. 이소미는 7언더파, 첫날 단독 선두였던 이미향은 6언더파다.

양준호 기자

디지털 네이티브가 그리는 회화의 미래

국제갤러리 '넥스트 페인팅'
고등어·유신애 등 젊은 작가 6인
내면의 깊숙한 갈등 시각화 시켜
"디지털 시대 차별화된 매체 증명"

몇 초 만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시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 이런 현실 속에서 적게는 수시간,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 완성되는 회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또 디지털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살아온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캔버스 위의 물감이란 어떤 존재일까.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5일부터 막을 올린 젊은 작가 6인의 그룹전 '넥스트 페인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전시다. 1980년대~1990년대 중반 출생한 고등어, 김세은, 유신애, 이은새, 전병구, 정이지 등 6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이 가장 오래된 매체인 회화를 통해 이미지 과잉 시대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단순히 전통 회화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세대의 시각적 경험이 회화적 가치와 만날 때 생성하는 새로운 미학적 영역을 탐구한다.

전시는 여섯 작가의 작업적 차별점을 잘 드러내는 작품을 한 곳에 모아 놓은 도입부 격의 공간을 시작으로 2인전 형식의 공간 세 곳을 차례로 둘러볼 수 있게 구성됐다.

유신애와 이은새의 작품으로 꾸며진 첫 번째 방은 대량의 이미지가 속도감 있게 소비되는 현대 사회에서 회화만이 가진 독보적 존재감을 감각하도록 기획됐다. 일례로 유신애의 '착취 속 혁신(2025)'은 정통 풍경화에서 볼법한 고요한 들판 위에 자극히 현대적인 파편조 기계가 마치 우상처럼 솟아 있는 초현실주의적 장면을 통해 구원에 대한 속물주의적 갈망을 시각화했다. 이은새는 미디어가 대상화하는 인물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응시하면서 얼룩과 상처, 흔적 등 일상에서 부딪힌 모든 흔적을 수집해 회화로 옮기고 있다. 일상의 흔한 이미지가 회화로 다시 태어날 때의 의미와 깊이를 만나볼 수 있다.

고등어와 전병구가 참여한 두 번째 방은 회화의 시간성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공간이다. 고등어는 불연과 긴장 상태인 신체를 하나의 방으로 인식해 방안에서 벌어지는 이미지들을 밀도 있게 구성한 '룸룬' 시리즈를 선보인다. 전병구는 "풍경과 조각 등이 회화의 주요 소재"라면서도 "장소와 대상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 풍경을 화면에 담아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세은과 정이지의 대형 작품들이 내걸린 세 번째 공간은 이른바 '스케일의 방'이다. 가로 4.6m, 세로 3m가 넘는 압도적인 크기의 회화들이 자리 잡았다. 이성휘 큐레이터는 "물리적 스케일이 회화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은은 끊임없이 변모하는 도시 공간을 신체적인 경험으로 포착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직접 본 풍경이나 사물, 주변 인물을 주로 그리는 정이지는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을 그림으로 남긴다"고 설명했다. 이 큐레이터는 "이들 젊은 작가는 가상성과 물질성의 대립 속에서도 회화 고유의 감각 경험을 지속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디지털 시대의 회화는 역설적으로 가장 차별성 있는 매체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0일까지.

김경미 기자

① 유신애, 'Innovation in Exploitation(2025)'.
② 전병구, '무제(2024)'.

불법 K콘텐츠 10건 중 7건은 웹툰

저작권보호원 해외유출 피해 조사
영화·방송 불법 유통 2년새 10%P↓
웹툰은 동기간 11%P 늘어 대조적
운영자 적발 난항·처벌수위도 낮아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K콘텐츠 10건 중 7건은 웹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복제물 가운데 71.6%가 웹툰, 나머지 28.4%가 영화·드라마·예능 등 영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호원이 파악한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2만 8721개 가운데 표본 1000여 곳에서 유통된 총 4억 1400만 개의 불법 콘텐츠 분야를 분석한 결과다.

영화·방송 등 영상 한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비중은 2022년 39.9%에서 지난해 28.4%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웹툰 불법 유통은 60.1%에서 71.6%로 늘어났다. 불법 유통 웹툰은 수년째 작가와 플랫폼, 제작사가 해결을 요청해 온 문제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도 이미 수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액은 4465억 원(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 규모의 20.4%를 차지했다. 이조차도 적게 추산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웹툰 사이트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운영자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폐쇄해도 곧이어 새로운 웹사이트가 등장한다. 이 같은 정보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파돼 플랫폼이 찾아내기도 어렵다.

불법 웹툰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과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등을 운영해 온 A씨가 국제 공조 끝에 붙잡혔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다.

업계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 형량 상한선인 5년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승 기자